

주4일제 도입 공약,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과로 문제

장항미 회원, 노동시간센터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앞다투어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는 나와 같은 K-직장인들의 표심을 겨냥한 주 4.5일제 혹은 주4일제 시행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공약도 있다.

줄어든 듯 보이는 노동시간, 그러나 심화되는 양극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62.2시간으로 전년 대비 12.3시간이 줄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05.8시간으로 전년 대비 5.1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7,703원으로 전년 대비 11.7% 올랐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8,404원으로 정규직 임금 상승폭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를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보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한 이중 구조가 불황 탓에 더욱 두드러진 것이라고 분석했다.¹⁾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고용 형태, 임금 소득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시간 역시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기술 발전은 제조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가져왔고, 단순 노무직에 종사했던 저학력-저임금 노동자들은 점차 일자리 기회가 줄고 불안정 일자리로 밀려나면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고학력-고임금 노동자들은 전문 서비스

1) 임금상승·근로시간 단축…정규직만 누렸다, 매일경제, 2025.04.29

직종에서 일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긴 노동시간에 따른 과로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²⁾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단시간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30.8%를 차지했고, 주 17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250만 명으로 2023년 대비 10.2% 늘었다.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 건강,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초단시간 노동자 역시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한 곳의 일자리만으로는 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해 2~3개 이상의 일 자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과로로 이어지는 것이다.³⁾

한편 지난해 11월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으나,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시민사회와 노동계로부터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과로사를 조장하는 예외 규정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물류, 배송 관련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고정야간노동의 문제는 또 어떤가.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2급 발암 물질로, 노동자 스스로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을 악화시킨다. 그럼에도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야간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야간노동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⁴⁾

주4일제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정기권은 그동안 이러한 노동 현안들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더니,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주4.5일제 혹은 주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노동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⁵⁾ 하지만 주4일제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 여러 방향으로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같은 상황에서 주4일제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 구조의 양극화 문제는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현재 시행중인 주5일제조차 온전히 누릴 수 없는데, 주4일제가 도입되면 또 다시 소외될 게 불 보듯 자명하다. 

2) [한노사연 기고] 근로시간의 양극화와 '주4일제' 문제, 참여와혁신, 2024.10.14

3) 무늬만 초단시간노동 '쪼개기 알바', 매일노동뉴스, 2025.03.20

"하루 2.83시간 일해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늪, 금강일보, 2025.02.03

4)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 10명 중 7명 "건강에 악영향", 매일노동뉴스, 2025.01.09

5)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다. - 통계청